

2017. 12.

제259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이해연 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무 주 군

목 차

1. 머루와인동굴 활성화 3
2. 농업업무 관련 부서 통합 6
3. 건축민원 원스톱서비스 구축 8
4.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마련 10
5. 대상포진 관련 백신접종 지원사업 마련 12
6.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14
7. 적상면 서창 (구)적상관광농원 해결방안 18
8. 접근성 고려 농·특산물 판매장 마련 19

평소 공동체의 소득증대와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이해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머루와인동굴 활성화

[질문요지] 머루와인동굴 내 주차난 해소 및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방안은?

의원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머루 와인동굴은 한수원이 운영하는 양수 발전소 건설당시 작업통로로 사용되던 시설입니다.

발전소사업이 완료되고 방치된 시설의 재생과정을 통해 지금은 무주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가 되어, 2009년 개장이후 매년 2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한편, 운영 초기에는 단순히 둘러보고 머루와인을 시음하는 것에 그쳤기에 방문객의 회전이 빨랐지만, 체험시설을 설치하면서 체류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장 또한 회전율이 낮아져 주차난 문제가 심화

되고 있습니다.

매년 성수기(여름, 가을)에 반복되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와인동굴 위쪽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 하였으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어,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 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4일 머루와인동굴 리모델링 기본설계 착수보고 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이라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덜고, 주민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와인동굴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농특산물의 매출액

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주춤했던 2015년에도 매출액이 성장한 것으로 봤을 때 체류시간이 늘수록 구매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루와인동굴 내부 리모델링(사업비 7억원 본예산 확보)을 통해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하게 된다면 조금 더 체류시간이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농·특산물의 판매가 늘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다양한 상품이 전시되고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특산물판매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 농업업무 관련 부서 통합

[질문요지] 현재 무주군은 농업관련 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음. 민원편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998년부터 1999년에 걸쳐 작은 정부 만들기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구조조정하게 되면서, 무주군도 지난 민선 2기 때 당시 농업지원과와 지도소를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운영했습니다.

농정부서와 농촌지도부서의 통합으로 영농지도와 지원에 대한 상담이 한 곳에서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다양화와 행정업무가 확대되면서 현장 영농지도 기능이 약화되고, 지도직 공무원의 분야별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직과 지도직의 업무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농업 관련 기관과의 공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합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지원과 지도 업무를 분리하게 되었으며, 전라북도 내에서도 군산시와 김제시, 순창군을 제외하고는 농업부서의 기능을 분리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삶이 있는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영농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영농기술에 대한 지도와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얻기는 어렵더라도 미래의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의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농정과 지도업무가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 건축민원 원스톱서비스 구축

[질문요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해서 건축 인허가, 건축민원 제증명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문제가 되고 있는 무주군 건축민원행정에 대한 해결책은?

무주군의 공직자라면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모든 분들에게 친절해야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야한다고 민선6기 취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축민원의 편리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시고 고견을 주신 덕에 민원서비스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관련서류 증명절차가 간단한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서류보완이나 공과금 납부 등이 필요하면 부득이하게 민원인의 추가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는 건축사를 통해야만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의 방문은 필요하지 않으며, 건축민원 제증명은 즉시 발급해 드리거나, 팩스를 통해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건축주 피해방지 등을 위한 건축규제가 늘면서 허가 절차가 복잡해져 모든 민원의 원스톱 처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와 후속 조치사항의 상세히 안내하고, 업무담당자가 자리를 비울시 다른 직원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해 민원처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마련

[질문요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9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 이외의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융자(90%)로 전환되어 국·도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농기계 구입에 대한 농가 부담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우리 군이 직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된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3개소(농업기술센터, 무풍·안성분소)에 65종 34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 금년에는 3,212농가에서 3,368대를 임대했고, 트랙터, 콤바인 등 고가 농기계를 활용해 489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관련 사업들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1억원)를 확보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농기계 지원사업이 10여년 이상 중단되어 기존 농기계들이 노후되고, 농기계 구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여러 농가들로부터 지속적인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간 활용횟수가 적은 대형 농기계는 지금처럼 임대나 농작업 대행을 활용하도록 하고, 영농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소형 농기계는 수요조사 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세세히 살펴, 농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 대상포진 관련 백신접종 지원사업 마련

[질문요지]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백신접종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피부에 수포와 발진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특히 노인들의 발병률(50%)이 높습니다.

대상포진의 적절한 치료법은 없고 예방접종으로 50~70%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의료기관에서 12~2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개별 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만치 않은 비용 탓에 가버워진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군민들이 서로 보듬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정감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상 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4개소로, 선행된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우리 군에 맞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고령화율은 30.9%(2017.1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에 도달하면 노인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동체를 잘 가꾸어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향유해야 지역도 발전하고 경제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의원님의 고견이 군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첫 단추가 되어 지속적으로 폭넓은 예방접종 사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6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질문요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이자를 이차보전 할 계획은 없는지?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민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차보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융자금 대부 이율은 1.5%로 이중 1%는 융자사업 대행에 따른 여신관리 수수료로 지급하고 0.5%는 무주군 세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과 융자금의 이자수입은 홍보비·사무관리비·법무관리비 등 기금관리를 위한 운영관리비로만 사용하며, 원금의 손실 없이 기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차보전을 하게 되면 지출이 커지는 만큼 원금이 손실될 수 있고, 장기간 계속된다면 원금이 고갈되어 결국 융자지원이 필요한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금전급부(무상증여) 성격인 보조금과 달리, 융자사업은 민간금융기관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로 사업의 공익성과 함께 시장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이율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들로 전라북도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경우 최하 1%의 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목적대로 운용하고 원금 손실을 방지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우선, 융자금 대부 이율을 여신관리 수수료인 1.0%로 낮추고 기금유지관리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만 충당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

전라북도 내 시·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용 현황

구분	용자금액		이율	상환기간
	개인	법인·생산단체		
전주시	1억원~3억원	3억원~5억원	1%	1년거치 2년상환 ~1년거치 5년상환
군산시	1억원		2%	1년거치 5년상환 ~1년거치 10년상환
정읍시	2천만원		2%	2년거치 4년상환
익산시	5천만원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남원시	4천만원	8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김제시	3천만원	5천만원	2%	1년 이내 ~3년거치 5년상환
완주군	2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2억원	1%	1년거치 2년상환 ~1년거치 5년상환
진안군	3천만원	5천만원	1.5%	2년거치 5년상환
무주군	3천만원	5천만원	1.5%	1년거치 2년상환 ~2년거치 3년상환
장수군	5천만원	1억원	1%	3년거치 7년상환
순창군	5천만원	1억원	1%	3~5년거치 6~8년상환
고창군	2천만원	5천만원 (귀농사업선정자)	1%	1년거치 2년상환
부안군	5천만원	7천만원	3%	2년거치 1년상환
임실군	3천만원		1.5%	1년거치 5년상환

전라북도 내 시·군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운용 현황

구분	융자금액		이율	상환기간
	개인	법인·생산단체		
무주군	2천만원		1.5%	2년거치 3년상환
고창군	1천만원	5천만원	3%	2년거치 3년상환
군산시	융자지원사업 없음			
부안군	융자지원사업 없음			
순창군	융자지원사업 없음			
정읍시	융자지원사업 없음			

7 적상면 서창 “[구]적상관광농원” 해결방안

**[질문요지]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구]적상관광농원이
홍물로 방치되어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적상면 사천리 (구)서창관광농원은 1994년 휴게소, 민박시설 등을 건축하려다 2001년 건축주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부지는 경매로 처분되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골조 건축물의 지상권을 새로운 토지주가 매입하지 못해 사유재산침해 등 법적인 문제로 건축물의 재시공이나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우범시설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주나 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방치된 건축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접근성을 고려한 농·특산물판매장 마련

[질문요지] 관광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마련하면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량리 판매장과 머루와인동굴 판매장, 덕유산 휴게소 으뜸 농·특산물 판매장 등 상설 판매장이 있으며,

금년에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우정연수원과 태권도원 내 농·특산물 판매장 2곳을 신설했습니다.

지속된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소규모 영세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 판매장의 활성화와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곳에 판매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덕유산 휴게소 으뜸 농

· 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예산 4천5백 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대규모 재배작목은 농협 또는 과수조합 등을 통해
제통출하를 하고 있으나, 블루베리 등 특용작목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지를 확보한 영농법
인을 대상으로 판매장을 비롯한 공동선별장, 저온저
장시설 등을 점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판매장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창출과 영농법인 단체의 자립을
돕고,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농·특
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
다.